

새만금, 친환경 미래농업 메카 입증

전북대 새만금미래농업교육연구센터, 참깨 · 녹두 · 맥주보리 등 시험연구로 고부가 작물 재배 성공

현재 막바지 조성이 한창인 새만금 농·생명용지가 미래 새로운 농업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작물 재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실제 작물 재배를 통해 입증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전북대 새만금미래농업교육연구센터(센터장 손재권)는 지난 2015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 첨단농업시험단지(50ha) 규모의 시험연구 부지를 배정 받아 제염 및 배수, 토양개량, 작물시험 등의 시험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대는 30여년 간의 간척지 연구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참깨와 수박, 양파, 마늘 등 다수의 채소 작물과 식용피 등 기능성 작물을 재배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의 고도이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엔 참깨와 녹두, 마늘, 양파, 귀리, 맥주보리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도 역시 재배에 성공하면서 새만금이 친환경 미래농업의 메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맥주보리는 일반 농지의 80% 수준으로 간척지에 초기 도입이 가능한 작물로 확인돼 전북대가 이를 활용한 수제 맥주를 시범 생산. 향후 새만금 8차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대는 오는 10월 대학 개교 70주년을 맞아 새만금에서 생산해 낸 친환경 맥주보리를 이용해 수제 맥주를 만들어 시음회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전북대는 세계 수준의 농생명 연구 역량을 새만금에 보태고 내년부터는 수익환원 모델 구축과 학생 실습 등의 교육 훈련도 병행할 예정이어서 새만금 농생명 용지가 농업뿐 아니라 다방면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대 새만금미래농업교육연구센터(센터장 손재권)는 지난 2015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 첨단농업시험단지(50ha) 규모의 시험연구 부지를 배정 받아 제염 및 배수, 토양개량, 작물시험 등의 시험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들어 시음회도 가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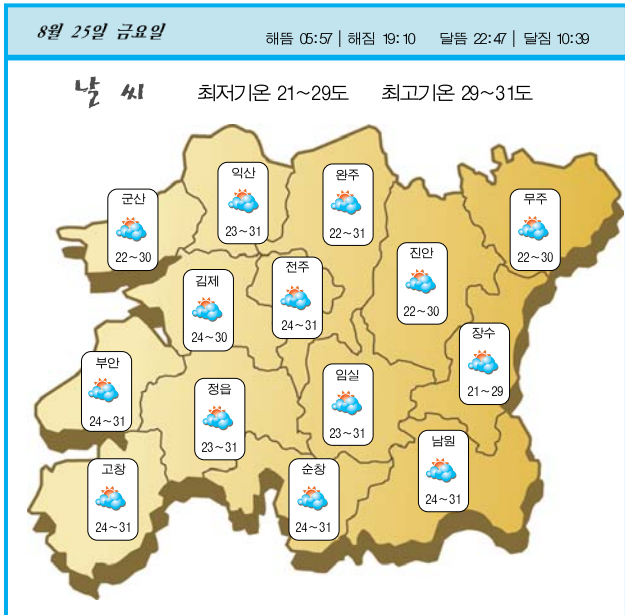
특히 전북대는 세계 수준의 농생명 연구 역량을 새만금에 보태고 내년부터는 수익환원 모델 구축과 학생 실습 등의 교육 훈련도 병행할 예정이어서 새만금 농생명 용지가 농업뿐 아니라 다방면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재권 새만금미래농업교육연구센터장은 "현재 시험단지에서 시험재배 결과 새만금 농생명 용지는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여 세계적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며 "새만금이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향후 고소득 작물을 개발하고, 8차 농산업화 모델을 만들어 나

가겠다"고 밝혔다.

이남호 총장은 "새만금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전북의 미래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 메카"라며 "대학의 기술 역량을 더한다면 새만금 미래농업의 활로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비빔밥축제, 다양한 전주형 먹거리 '맛있는 정원' 참여 음식 판매자 모집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는 행사장에서 방문객들이 다양한 간편 음식들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맛있는 정원'에 참여할 음식 판매자를 모집한다.

'맛있는 정원'은 올해 비빔밥축제 기간 동안 매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비빔밥 축제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채롭고 풍성한 전주형 먹거리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된다.

모집 대상은 축제장에서 즐길 수 있는 판매가격 3,000원 내외의 테이크아웃형 음식으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음식의 주재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모든 재료는 식용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원료 및 색소, 향신료 등 허용되는 첨가물만 사용해야 한다.

공모 신청은 전주비빔밥축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himbapfest@naver.com)로 응모하면 되고,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이다.

조직위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메뉴와 가격의 적절성, 차별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 29일 심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학교 놀이공간으로 바뀐 운동장 조희대

도교육청-세이브더칠드런-전주시 공동 추진, 아동친화 놀이공간 개장식 열려

사용하지 않던 운동장 조희대가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변신했다.

또 맛있는 식생활관 앞 계단도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세이브더칠드런 등이 추진한 아동친화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결과다.

24일 전북도교육청과 세이브더칠드런·전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아동친화 놀이공간 개장식이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주 종산초교와 덕일초교에서 잇따라 열렸다.

아동친화 놀이공간은 국제아동권리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전북교육청,

전주시와 협력해 학교 내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아이들의 의견을 담아 설계 디자인을 반영해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종산초교는 식생활관 앞 계단을 덕일초교는 운동장 조희대를 놀이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2개 학교에서 열리는 개장식에는 김승환 교육감, 김승수 전주시장, 유재성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등 1백여명이 참석한다. 이와함께 학교놀이공간의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무소에서 설계에 담

긴 의미를 설명한다.

이번 개장식에 앞서 세이브더칠드런과 종산초, 덕일초교는 지난 4~5월 아이들과 함께 4차례의 걸친 워크숍을 갖고 건축사와 아이들이 직접 놀이공간이 조성될 장소를 선정하고 함께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을 가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2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해은 기자

도내 전문대학 입시설명회 27일 도교육청 2층 강당서

2018대입 전북 전문대학 입시설명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전북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다.

도내 고등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이날 설명회에는 군산간호, 군장 서해, 원광보건, 전북과학, 전주 기전, 전주비전, 한국농수산대학 등 도내 8개 전문대학을 비롯해 동서대학교(성남), 서영대학(광주) 등 총 10개 전문대학이 참여한다.

설명회에서는 2018학년도 전문대학 수시지원전략을 안내하고 대학별 2017 대입 입시결과와 대학별 특성화 학과 소개 및 취업현황 등이 소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8대입 전문대학별 전형 방법, 특성화학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전략 및 진학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명회를 알차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2018 대학수능시험 내달 8일까지 원서접수

201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한다.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된다.

도내 시험지구 교육청은 6곳이며, 관할지역은 ▲전주교육지원청-전주, 완주, 진안, 무주 ▲군산교육지원청-군산 ▲익산교육지원청-익산 ▲정읍교육지원청-정읍, 고창 ▲남원교육지원청-남원, 장수, 임실, 순창 ▲김제교육지원청-김제, 부안이다.

시각장애 등 시험 특별관리대상학생은 전주교육청에서 접수하며 전주 선화·맹아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해당학교에서 접수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교는 학교를 행복의 고교로 만들어주세요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라북도지사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령외교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업내용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